

AI와 함께하는 유아 놀이: 유아의 삶과 관계 맺고 응답하기

박선정

(현동숲유치원 교사)

1. AI, 기술활용을 넘어 함께 관계 맺기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네가 좋구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어오던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인간이 만든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으나, 인간처럼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며 결국 인간의 삶 속에 인간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

인간이 만든 AI는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계의 기술에 불과했으나 인간은 AI를 인간처럼 친근하게 느끼고, 심지어 AI에 의존하며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유아 놀이를 위한 자료 지원에서부터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막히는 부분에서는 AI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내 개인적인 감정도 나눌 정도이니 말이다)

AI는 우리의 삶 속, 특히 교육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유아를 위한 놀이와 교육 속으로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 이러한 AI에 대해 교사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AI에 대한 교육을 들으러 온다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AI를 나도 프로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일 것이다.

이는 AI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AI와 책임있게 관계 맺기’가 빠져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의 삶과 깊이 관계 맺는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유아 또한 AI와 관계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인 AI 행위자이다.

이런 유아가 AI시대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고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와 함께하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 보다 관계와 참여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지여정(2024). AI와 함께 살기-피노키오 서사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3(1), 29-53.

2. AI, 유아의 삶 속에서 관계 맺으며 놀이하기

가. 사례1: 관계 속에서 협력을 만들어가는 공동행위자로서 AI

AI 플랫폼은 유아들에게 신기한 마법처럼 결과물을 순식간에 만들어 준다. 놀이 속에 유아는 행위 주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의 새노래 개사하기의 활동은 Chat GPT가, 멋진 그림들은 AI가 그려준다! 본 사례에서는 유아와 AI의 관계에서 유아가 AI에게 끌려다니기보다 협력자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캐릭터나 마크 생성과정에 있어 개별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예전에는 투표로 정해서 그림 실력이 뛰어난 한 아이의 주체성만 발휘되었던 과거 사례를 벗어나 개별유아가 그린 그림 모두가 하나로 합쳐주는 기술자로서 AI가 캐릭터 생성에 협력자로 참여한 사례이다.

이러한 캐릭터와 마크는 유아에게 동등한 참여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유아들이 자신들이 만든 캐릭터와 마크로 친환경(PET병으로 만든 실을 활용한)제품을 생산해 봄으로써 AI-유아는 함께 협력하는 공동행위자가 되었다.

나. 사례2: 디지털-자연-유아, 관계를 맺으며 예술로 응답하기

유아들이 AI를 예술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미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Animated drawings과 AutoDraw, 최근 음악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SONO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활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아 놀이와 삶 속에서 지속되었는가? AutoDraw는 유아만의 끄적거리기 특징적이고 독특한 형태가 살아있는 그림 대신에 틀에 갇힌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았는가? SONO 또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보다 AI앱에만 너무 의존하지않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는 자연을 디지털로 감각하고 그 과정에서 유아는 AI가 변환시켜 준 그림보다 유아 스스로가 감각하며 그린 선과 감응하며 찾은 색으로 입혀진 작품을 가치롭게 여기고 이를 일상의 아름다움으로 향유하며 감각하고 놀이하었다. AI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디지털과 관계 맺으며 아름다움을 창발하고 이를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놀이'라는 명명을 붙인 관찰놀이, 미술놀이가 아닌 자연-디지털-유아가 서로 얹혀 만들어내는 예술적 생산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 사례3: AI-유아, 관계 속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하기

사례1 에서와 같이 AI-유아가 함께 협력하고 공동행위자로 만들어낸 이미지, 물건 등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한 연수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멋진 동화를 제작하는 방법(기술)을 배워왔다. ‘당장 활용해 봐야지’ 해서 생성된 동화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는 편향성이 담겨있는 그림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자아이는 파란색 옷에 능동적이고 활발한 이미지, 여자 아이는 수동적이고 분홍색 치마를 입은 이미지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난 부분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는 AI가 만든 교육활동자료를 어떤 가치 판단도 없이 교육현장에 투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AI를 활용하여 함께 제작한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AI와 함께 제작된 교육자료에 대한 편향성 등 AI를 활용하면서 교육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활용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AI, 유아의 삶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기

인공지능의 선구자인 앨런 튜링(Alan Turing)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If a machine can think, it might think more intelligently than we do, and then where should we be?" (만약 기계가 우리보다 더 지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

이제 잡다하게 만들고 생성하는 단순한 업무들은 AI가 다 할 수 있다!

(한때 코딩교육의 열풍이 있었으나, 코딩도 이제는 AI가 더 잘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지 않을까?

AI 시대에는 건잡을 수 없이 기술이 발전해가고 유아가 살아가는 삶은 나날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늘 현재가 되어가는 미래를 살고 있는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계속 생성하고 변화 중인 두꺼운 현재(Thick present)를 가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려한 기술에 앞서 교사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유아의 삶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이다.

AI와 교사인 우리가 동등한 행위자로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에 서로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실천하되, 생각과 판단마저 AI에게 맡기지는 말자!

AI에 끌려다니는 교사가 아니라 의미있는 삶을 위한 가치 생성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e-mail: 박선정 obst21@naver.com)